

권용원 금투협회장, 자택서 숨진채 발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이 영면했다.

금융투자협회는 6일 "이날 오전에 권용원 회장이 돌아가셨다"면서 "사인은 경찰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권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61년생인 권 회장은 서울대 전자



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전자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술경영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키움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난해부터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맡았고, 임기는 오는 2021년 2월까지였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우리금융, 지체장애인의 날 맞아 후원금 전달

우리금융그룹은 오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우리

은행 본점에서 유망주 장애인 스포츠 선수 육성 지원과 장애인 휠체어 수리를 위한 후원금을 전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오른쪽 첫번째)이 유수영 선수(가운데), 홍순봉 전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미래에셋대우, 김포 경제인연합단체와 업무협약

미래에셋대우는 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김포경제인연합

단체와 김포 중견·강소기업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김포지역 중견·강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김남준 김포상공회의소 회장(네번째), 골드밸리산업단지 이정석 이사장(여섯번째) 등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미래에셋대우

KT&G, 10년 장학사업 성과 담은 백서 발간

KT&G 장학재단이 교육소의계층 지원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10년 넘게 이어온 장학사업의 발자취를 담은 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백서에는 장학재단의 사업 소개와 연혁, 선발 장학생들의 성장 이야기, 재단의 도움을 받은 장학생 및 가족들의 감사 편지 등이 담겨있다. 특히 축구선수, 악기연주가 등을 꿈꾸는 예체능 장학생과 시설보호 청소년들이 장학재단의 지원을 통해 성장해나간 이



KT&G 장학재단이 10년 넘게 이어온 장학사업 성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KT&G

아기도 짜임새 있게 구성돼있다.

/박인용기자 parku7854@



롯데제과, 빼빼로데이 맞아 과자 나눔 활동

롯데제과는 지난 5일 사회복지단체와 '2019 롯데제과 착한빼빼로

데이 나눔전달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롯데제과는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빼빼로 등 과자 3000 박스를 전달했고, 8일에는 '대한적십자사'에 빼빼로 등 과자 1170 박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왼쪽 두번째부터)과 신항범 롯데제과 마케팅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제과

혁신산업에만 보수적인 정부



윤 위 중 의

잠시 심 포

인류 역사를 보면 개방과 경쟁이 문명을 이루는 동력이었다는 점을 곳곳에서 알 수 있다. 15세기경 중국은 경제력, 항해술,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유럽을 앞질렀다. 그런데도 신대륙은 유럽이 차지했다. 중국도 우수한 항해술과 거대한 선박으로 몇차례 탐험대를 보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유럽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포기할 줄 모르는 탐험정신을 바탕으로 우연히 신대륙을 발견했고, 이를 계기로 서구 문명이 지구를 지배하는 단초를 주게 됐다.

왜 그랬을까. 중국은 거대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자랑했지만 '단일 통치체제'가 오히려 문명발달에는 걸림돌이 됐다. 왕의 명령 한 마디에 그 큰 땅덩어리에서 어느 누구도 신대륙 탐험에 나설 용기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열세였던 유럽대륙에서는 수많은 국가와 왕조가 서로 경쟁하는 시대였고, 콜럼버스는 자신의 후원자를 찾아 경쟁관계였던 이곳저곳의 왕조를 돌아닌 결과, 마침내 에스파냐의 이사벨 여왕 지원을 받아 원정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개방과 경쟁이 문명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가까운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16세기부터 조총을 비롯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 막부와 수많은 영주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개국에 박차를 가하며 신기술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선은 19세기 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서양과의 교류를 단절해 일본에 강점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런 역사를 들추는 것은 최근 검찰의 타다 경영진 불구속 기소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만 세계 흐름에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타다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다. 지구 곳곳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가 왔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신산업들이 싹을 틔우고 있는 상황이다. 타다도 이런 신산업 가운데 하나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데 검찰의 타다 경영진 기소는 이제 막 올라온 새싹을 짓밟아 버린 결과가 됐다.

물론, 타다와 경쟁하는 기존 택시업계의 입장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타다뿐 아니라 숙박, 모빌리티, 금융 등 산업 곳곳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내놨고, 해당 분야의 전통업종 종사자들은 거센 항의를 했다. 이를 조율하는 것

은 해당 산업 종사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처간 엇박자를 내는 사이, 멸절된 회사의 경영진이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더 한심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법무부, 청와대, 국토부 등이 서로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했다, 안했다 하며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솔직히, 타다 경영진 기소가 누구 책임인지는 큰 관심이 없다.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사한 이슈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각종 규제와 무책임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라고 하고, 기업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라고 할 수 있나.

지금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진보를 외칠진 몰라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 어떤 정부보다 보수적이다. '변화를 수용하기보다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에서의 '보수 정권'이다.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에 박차를 가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사고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KT스카이라이프, 생명나눔 캠페인 앞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손잡고 장기이식 수술비 지원 등 공익활동

KT스카이라이프가 생명존중 공익 활동을 위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손을 맞잡았다.

KT스카이라이프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서울 서대문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옥에서 유희관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과 박진탁 사랑의장기기증운동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나눔'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1991년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새생명나눔 사랑실천운동으로 국민 서로간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장기기증 홍보 및 장기부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왼쪽)과 KT스카이라이프 유희관 부사장이 업무협약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환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협회 및 기업과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와 사랑의장기기증운

동본부는 이날 협약을 통해 대국민 생명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생존 장기 기증인 대상 '사랑의 안테나' 지원 ▲기부금을 통한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엄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청소년 장기이식 수술비 지원 등의 공적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스카이라이프가 보유한 자체 채널 등의 플랫폼을 활용해 생명나눔 캠페인을 홍보하고, 전국 지사의 현장영업시 캠페인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국민들의 생명나눔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스카이라이프는 협약 기념 캠페인의 첫 활동으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걷기 행사를 통해 목표 기부 포인트를 달성,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인사

- ◆통일부 ◇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안선근
- ◆동화약품 ◇ 전무 △개발실 이대희
- ◆세계비즈니스스포츠월드 △본부장 김성교 △콘텐츠통광국장 강용모 △경제국장 겸 경제부장 송광섭 △스포츠국장 겸 연예문화부장 류근원 △광고국장 노경백 △문화사업국장 정호원 △편집부장 고용석 △산업부장 배진환 △스포츠부장 권기범 △사진팀장 김용학 △경영지원팀장 정익교 △문화사업국 기획위원 오홍근 △스포츠국 게임전문기자 김수길(부장대우)
- ▲경제부 부장 임정빈 △편집부 부장대우 강민영
- ◆CEO스코어데일리 △세종본부장 천근영

부음

- ▲전수덕 씨 별세, 전광열(MBN 보도국 차장)·전지연(포스코 인재창조원 과장) 씨 부친상, 김예은 씨 시부상 = 5일 오후 9시, 서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6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8일 오전 7시. 02-2030-4444
- ▲김기원(전 국제문화협회 사무총장) 씨 별세, 이순자 씨 남편상, 김성종(전 삼성농구단장)·김희중·김우중(현대자동차 미주법인 부장) 씨 부친상, 이승규(삼성전자 부장) 씨 장인상 = 6일 오전 6시 18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7일 정오부터 20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2-3410-6906(7일 정오부터 02-

3410-6920)

- ▲박지순 씨 별세, 김종선(전 중도일보 편집국장) 씨 부인상, 김세태(전 한국수력원자력 처장)·김주태(대전 제일고 교감) 씨 모친상, 이일주(공주대 명예교수)·임형호(전 한국수자원공사 처장)·이태연(충남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황창연(UPC 대표이사) 씨 장모상 = 5일 오후 8시, 대전성모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7일 오전 11시30분. 042-220-9870

- ▲류재홍 씨 별세, 류한선(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씨 부친상, 송희원(SC제일은행 팀장) 씨 시부상 = 6일 오전 5시 22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40분. 02-3010-2291